

엄마.

뭐 생각해?

월 그렇게 생각해, 하고 한세진이 말했다. 이순일은 등산화에서 눈을 떼고 한세진을 바라보았다. 한세진이 조금 부은 듯한 눈으로 이순일을 보고 있었다. 새치가 몇 가닥 섞인 머리카락이 어린 조카의 머리 방울에 아무렇게나 묶인 채 목으로 늘어져 있었다.

술 적은 눈썹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고 동그란 이마와 눈은 나를 닮았구나. 이 아이도 시장에서 자랐다. 자기 형제자매들과는 곧잘 말하다가도 어른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얼굴을 숨기느라 고개를 꼭 숙이곤 해 시장 상인들이 이 아이를 수쿠리, 수쿠리, 하고 불렀지. 이순일은 한세진이 잘 살기를 바랐다. 하지만 이 아이는 살림을 몰랐다. 스테인리스 찜기 속 물이 다 증발하도록 가스 불에 내버려두었고 내열컵도 아닌 유리컵에 금속 스푼을 넣지도 않은 채 갓 끓인 물을 따랐다, 유리병이든 컵이든 생각에 잠긴 채로 월 쥐고 있다가 손에서 그걸 놓치는 일도 잦았다. 그런데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. 손아귀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. 월 움켜쥔 줄을 몰라 바깥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사라질 것 같은 아이들.

잘 살기.

그런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, 하고 이순일은 생각했다.

나는 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랐다.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른이 되기를,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다. 잘 모르면서 내가 그 꿈을 꾸었다. 잘 모르면서.

너도 이런 거 필요하냐?

이순일이 묻자 한세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.

뭐, 등산화?

그래. 이런 거.

아니, 나 등산 안 해.

안 해?

안 해요.

아, 있으면 쓸 일 생겨. 너도 하나 사자.

아니야, 필요 없어.

필요 없어?

필요 없어요.

필요가 없다고? 이순일은 고개를 돌려 등산화를 다시 보다가 눈이며 코가 매워 서둘러 숨을 들이마셨다. 그게 필요해, 하고 말하며 한영진이 신발장은 뒤진 날이 목요일, 지난주였다. 엄마 내 등산화 못 봤어? 4층과 5층 신발장을 다 뒤지고 박스 몇개를 뒤집어도 그건 나오지 않았다. 내 등산화 어딴지, 내 등산화. 멍하니 종얼거리며 한영진은 그걸 찾고 있었다. 주말에 백화점 직원들끼리 산에 간다고 했다. 엄마 내 등산화. 이순일은 그게 거기 있다고 믿으며 거기 어디 있다고 말한 뒤 한영진이 찾도록 내버려두었다. 한영진이 아무리 뒤져도 그건 나오지 않았다. 마침내 이순일은 몇년 전 지경리 논바닥에서 망가진 등산화를 기억해냈다. 끈적한 진창에 들러붙어 밑창이 떨어져나간 등산화 한 켤레를, 이순일은 화가 나, 냄비 속을 젖던 국자를 쥐고 돌아서서 한영진에게 외쳤다, 너는 그걸 왜 이제야 찾아, 쓰지도 않고 박스에 담아두고 삭을 때까지 그대로 두더니 왜 미련하게 너는 이제야 그거를.

왜 그랬느냐고 한영진은 물었다,

말도 안 하고 내 걸 쓰고. 그걸 거기 버리고 왔냐고.

내 거를.

쓰겠다 말겠다 말도 없어 가져가서, 망가뜨리고, 버리냐고.

그걸 버리냐고.

이순일은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걸 말고 입을 다물었다.